

제 229 호

2025 년 5 월 22 일

1. 해양이슈와 정책(1)

2. 해양이슈와 정책(2)

3. 해양이슈와 정책(3)

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1. 미-일 동맹에서 알래스카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

▶ 발행기관: Center for Strategic & International Studies

▶ 저 자: Shoichi Itoh

▶ 일 자: 2025년 5월 12일

▶ 개 요

오늘날 북극 지역과 북태평양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.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 협력관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, 알래스카 주변에서 군사적 도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음. 미-일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함. 알래스카는 미-일 양국의 에너지 전략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.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의 변화를 인지하고,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알래스카의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함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2.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미 조선 협력 경로

▶ 발행기관: Center for Strategic & International Studies

▶ 저 자: Henry H. Carroll & Cynthia Cook

▶ 일 자: 2025년 5월 15일

▶ 개 요

인도-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미 해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져갈것임. 그러나 미 조선산업은 생산능력 부족, 산업기반 제약, 비용 초과, 인도 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, 이는 미국이 해군력 증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함. 한 가지 해결법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, 유지·보수·정비(MRO) 협력, 동맹국의 미 조선소 구매 및 활성화, 생산 방법 다변화, 동맹국 건조 선박 구매 등의 옵션이 있음. 미국이 우방국 의존을 통한 조선 문제 해결과 자체역량 강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다양한 협력 옵션이 가져오는 함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229 호

2025 년 5 월 22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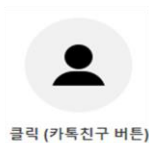
1. 해양이슈와 정책(1)

2. 해양이슈와 정책(2)

3. 해양이슈와 정책(3)

4. 해양이슈와 정책(4)

<KIMS 카톡 채널>



3. 미국의 대북전략 재조정

▶ 발행기관: Stimson Center

▶ 저 자: Joel S. Wit

▶ 일 자: 2025년 5월 16일

▶ 개 요

첫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,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함. 바이든 행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, 갈등의 위험은 커졌음. 워싱턴, 베이징, 모스크바 간의 긴장 고조, 미국의 경쟁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량 증가, 그리고 급증하는 지역 군비 경쟁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심화시켰음. 물론 쉽지 않겠지만,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(핵)전쟁의 위험을 줄이며,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도모해야 함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4. 중국,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항해금지구역을 선언

▶ 발행기관: Newsweek

▶ 저 자: Ryan Chan

▶ 일 자: 2025년 5월 21일

▶ 개 요

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가운데, 중국해사국은 해당 해역에 대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[항해금지](#)를 발표하였다.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. 중국은 해당 해역에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투입했다. 아울러 중국은 상기 기간 동안 해당 해역 북쪽에서 [해군훈련](#)을 실시할 예정이다. 올 2월에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해당 해역에 접근하자 중국해경은 이를 저지하였다. 이에 한국 외교부는 “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”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.

[원문 링크 클릭](#)

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